



저는 원보영 수녀입니다. 오빠 두 명과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태어난 다음 해 성탄절에 오빠들과 함께 김제 요촌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그 후 첫영성체를 했습니다. 첫 영성체 후 부모님의 냉담으로 저도 함께 성당에 나가지 않다가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이 파견되어 있는 신평성당에 다시 가게 되면서 레지오, 청년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녀님들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1996년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도자가 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주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서원 후 강진과 정림동 본당에 파견을 받았는데 다양한 사람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종신서원을 하고 시카고 한인성당에 전교수녀로 있을 때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어려움과 두려움, 외로움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었고, 특별히 미국 관구 수녀님들과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2년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한 후 2016년 한국관구 관구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관구서기 사도직을 통해 미국 관구와 우리 수녀님들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가는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 수녀님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힘이 되었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와 위탁이야말로, 영혼을 하느님께 의존하도록 작은 일들 속에서 단련시켜 주는 천상적 덕목입니다.”라는 마더씨튼의 말씀이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영감을 줍니다.



Hello, I'm Sister Won, Bo-Young. I have one older brother and one younger brother. The year after I was born, I was baptized and later made First Communion with my brothers at the Yo-Chon Catholic Church in Gim-Jae. Not going to church for some time, I resumed my Christian faith by going to the Shin-Poong Parish, where our Sisters were missioned. I was active in joining the Legion of Mary



and the Youth Group. Never thinking of becoming a religious in my life, I believe my entrance is owing to the prayers of my parents and God's Providence. Recommend by our Sisters, I entered our community in 1996.



After my first profession, I went to Gang-Jin Parish and Jeongrim-dong Parish. After the perpetual vows in 2006, I went to Chicago in the US to work for Korean Catholic immigrants who were lonely living in the foreign country. Through those years, I met God present in the parishioners who are diverse from parish to parish globally and especially understand how they feel fear and

loneliness in particular ways. And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meet the sisters of the US Province.

In 2012 I studied Social Welfare at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following year I began ministry as the Provincial Secretary. Serving for five years as secretary, I learned more about the sisters of both provinces. The fact that I was not alone on this religious journey



as all of our sisters were with me on this road was of great support and strength, and

the time was grace filled.



The following words of Mother Seton give me great consolation and inspiration as a religious. "Patience and resignation: Heavenly virtues exercised in little things that keep the soul dependent on God."